부천사람들 50년째 활 만드는 김박영 할아버지

"1년간 계절별 작업 거쳐야 활 탄생"

부천에 살면서 50년 넘게 우리나라 활만을 만들어 오고 있는 중요무형문화재가 있다. 1996년에 중앙정부로부터 중요무형문화재 47호인 궁시장(弓矢匠)으로 지정된 김박영(金博榮·80)씨다. 전국에 3명의 궁시장이 있지만 활을 만드는 무형문화재는 김씨가 유일하다. 2명은 화살을 만든다.

"일제시대 때 아버지께서 활의 고장인 경북 예천에서 활을 만드셨어요.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활과 친해졌지요. 부천에서 활을 만드는 유명한 분이 제자를 구한다는 얘기를 전해듣고 1965년에 부천으로 이사와 정착하게 되었지요."

김씨는 오랫동안 심곡본동의 성주산 기슭에 있는 활터에서 활을 만들어 왔다. 요즘에는 부천시가 마련해 준 상동의 영상문화단지 안 공방(工房)의 거리에서 만들고 있다.

"활을 제대로 만들려면 대략 1년간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여름에는 대나무를 다듬거나 굽고, 가을과 겨울에는 대나무에 각종 살을 붙인 뒤 말리며, 봄에는 해궁(解弓)이라 불리는 마지막 마무리 작업을 합니다. 이때 비로소 활이 탄생하는 거지요. 여러 개의 활을 동시에 만들지만, 하나의 활을 만들려면 최소한 서너달의 시간이 걸리는 셈이지요."

김용국 기자

김박영씨가 부천 '공방의 거리' 작업실에서 우리 활의 우수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

김씨는 기분이 울적할 때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자신의 기분이 활을 만드는 데 그대로 반영돼 좋은 활을 만들 수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사람들이 대나무만 있으면 활을 만들 수 있는 줄 아는데 사실은 대나무 외에 7가지의 재료가 더 필요하다는 게 김씨의 설명이다.

"활에서 대나무는 사람의 몸으로 따지자면 뼈인 셈이지요. 소뿔과 소힘줄을 이용해 활의 안팎에 살을 붙이고 손잡이에는 참나무를 붙입니다. 활 겉에는 방수를 위해 벚나무 껍질을 입힙니다. 소가죽과 뽕나무도 붙입니다. 접착제로는 민어부레를 사용합니다."

이 모든 재료들은 전문거래처를 통해 공급받는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우리나라 활은 외국의 활과 달리 '살아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 활은 선과 모양이 세계 최고입니다. 물을 빨아들이지 않지만 공기는 통합니다. 탄력성이 매우 뛰어나 최대 300m까지 나갑니다. 그렇기에 조선시대까지 무기로 사용됐지요. 오래 보관했거나 활을 쏜 다음에는 반드시 휘어짐의 균형을 잡아줘야 합니다. 외국인들에게는 이런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좀처럼 다루기 힘들지요."

여름엔 대나무 굽고 가을·겨울엔 살 붙이고 1개에 1000만원짜리도

김씨도 돈을 벌기 위해 한때 농사도 지어보고 옷장사도 해본 적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자신이 할 일이 아닌 것 같아 마음이 불편했다고 했다. "활을 만드는 시간에는 정말로 마음이 푸근합니다. 지금까지의 생활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는 않지만 집사람도 크게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활의 가격을 물어보자 최하 300만원 정도는 나가고 1000만원 이상 되는 활도 있다고 했다. 김씨는 이 활을 국내 활쏘기 동호인들에게 팔아 생계를 유지한다.

부천에 활박물관이 들어서게 된 것도 김씨의 역할이 컸다. 전시된 활의 상당수는 김씨의 작품이다. 육군사관학교에도 자신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고 했다. 수시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활 만들기 교실도 열고 있다. 그는 "아들녀석이 대를 잇겠다고 같이 활을 만들어 마음이 든든하다"고 말했다.

이두 기자 dlee@chosun.com

리빙포인트

danmee.chosun.com/livingpoint

도마에 소금을 뿌리면

도마에 소금을 뿌리고 스펀지로 살살 문지른 뒤 흐르는 물에 씻으면 음식 냄새가 도마에 배는 것을 막는 데 효과가 있다.

'새 삶 개척' '남편 사랑'이 결혼 동기

인천 사는 여성 결혼 이민자들 절반… 경제형편은 열악

외국에서 시집와 인천에 사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65%가 남편과 1~2번 만나본 뒤에 결혼을 했고, 46%가 '한국에서 새 삶 개척을 위해서' 또는 '남편을 사랑해서' 결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가 최근 여성 결혼 이민자 406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3%가 2000년 이후 한국에 왔으며, 나이는 30대가 38%로 가장 많고, 20대 26%, 40대 24%이다.

59%가 특별한 직업 없이 주부로 지내며 이 중 60%는 취업을 원한다고 대답했다. 주부 외에 13%는 서비스업, 11%는 생산직에 근무하고 있어 단순 노무직이 아닌 직종에도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직업 교육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전에 남편을 만난 횟수는 '1~2번'이 65.2%였고, '3~4번'은 14.5%였다. '10번 이상'은 16.7%였다. 한국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15%가 '매우 만족', 43%가 '만족', 33%가 '보통'이라고 답해 전반적으로는 한국 생활에 대한 평가가 나쁘지 않았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0%가 '100만~199만원', 36%는 '100만원 이하'라고 했다. '월 수입이 없다'고 대답한 경우도 있었다.

결혼을 한 동기는 '본국을 떠나 새로운 삶을 개척해 보고 싶어서'가 23.6%로 가장 많았고, '남편을 사랑해서'도 23.3%로 비슷했다. '경제적으로 발전한 한국에 살고 싶어서'는 18.7%, '본국 가족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고 싶어서'는 17%였다.

현재 인천에 살고 있는 여성 결혼 이민자는 7074명이며, 중국동포가 39.7%로 가장 많다. 다음은 중국인 34%, 베트남인 9.8%, 필리핀인 4.5%, 일본인 2.1%, 태국인 2% 등의 순이다.

이번 설문 조사에서 상당수가 조사를 거부했는데 "결혼 이민자임이 알려지면 주변 사람들이 멀리한다"거나 "남편이나 시부모가 다른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꺼려한다"는 이유가 많아 우리 사회가 결혼 이민자에 대해 아직도 배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인천시는 밝혔다.

최재용 기자 jychoi@chosun.com

김용국 기자 young@chosun.com

학교 급식 체험 25일 남구 주안6동 경원초등학교에서 학교 급식 체험이 열려 학부모들이 어린이들과 함께 음식을 받고 있다.

"재래시장서 물건 사면 추첨 통해 휴가비 줘요"

인천상인연합회와 인천지하상가연합회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추첨을 통해 손님들에게 모두 1000만원의 휴가비를 주는 행사를 벌이고 있다.

두 단체가 시장 홍보 차원에서 벌이는 이번 행사는 지난 22일 시작해 다음 달 14일까지 계속된다. 참가 시장은 모래내, 부평종합, 강남(서구), 가좌, 서구중앙, 신포 등 재래시장 6곳과 부평역, 신부평, 부평중앙, 부평대아 등 지하상가 4곳이다.

행사 기간 중에 손님들이 이들 시장이나 지하상가에서 물건을 사면 응모권을 주며, 여기에 이름과 연락처 등을 써내면 된다. 추첨은 6월 20일에 재래시장과 지하상가로 나눠 한다. 각각 1등 1명을 뽑아 현금 100만원을 휴가비로 준다. 2등은 50만원(2명씩), 3등은 20만원(5명씩), 4등은 10만원(20명씩)을 준다. 또 참가자 모두에게 인터넷 쇼핑몰 1만원 상품권을 준다.

연합회는 이번 행사의 성과가 좋으면 점차 인천지역의 모든 재래시장과 지하상가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873-4900

최재용 기자

알뜰정보

기록물 자료화 근로자 5명 모집

부천시는 중요기록물을 자료화하기 위해 기간제 근무자 5명을 27일까지 모집한다. 컴퓨터와 사무용 프로그램을 다룰 수 있어야 한다. 근무기간은 6~12월이다. 이력서와 사무관련 컴퓨터 자격증 사본을 시청 총무과나 이메일(hsisi@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대우는 하루 3만8000원. ☎320-2525

자녀의 잠재능력 이해하기 강좌

인천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28일 오전 10시 간석북부역 주변 성산효대학원에서 '우리 아이의 잠재능력은? - 다중 지능을 통한 자녀 이해'라는 주제로 부모를 위한 무료 특강을 연다. 서울대 문용린 교수가 아이들마다 다르게 갖고 태어난 소질과 적성, 능력을 발견하고 개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이야기한다. ☎429-5562~3

책과 꽃 교환 행사

인천환경공단은 6월 2일부터 6일까지 청라사업소에서 제2회 '꽃이랑… 책이랑…' 행사를 연다. 시민들이 집에서 보지 않는 헌 책을 가져오면 꽃으로 교환해주고, 교환된 책을 모아 섬이나 벽지 등에 기증하는 행사다. 꽃은 메리골드 등 6종 3000그루가 준비돼 있으며, 이들 꽃은 공단의 쓰레기 소각장에서 나오는 열로 재배한 것이다. 미리 참가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899-0411

만화지원센터 입주 작가 모집

부천만화정보센터는 원미구청 앞에 있는 만화산업종합지원센터에 입주할 만화 작가를 6월 10~16일에 모집한다. 월 사용료는 ㎡당 800~1600원(임대보증금 별도)으로 다른 건물보다 싼 편이다. 만화규장각 홈페이지(www.kcomics.net)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제출하면 된다. 교육실과 회의실, 자료실 등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666-3745

조선일보 인천연락처

▲취재본부 ☎421-8300~1
▲구독문의 ☎521-4428~31
▲광고문의 ☎435-5822~3